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알렉산드로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마태오 제13주일

성 아드리아노스와 성 나탈리아 순교자

제4조, 조과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인 찬양송
- 성당 찬양송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 186, B 207
- 사도경 : 고린토 전 16, 13-24 / 봉독서 230
- 복음경 : 마태오 21, 33-43 / 116, B 5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알렉산드로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우리 교회는 8월 30일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성 알렉산드로스(+337)를 기념합니다.

성 알렉산드로스께서는 다른 위대한 교부들처럼 언변의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모범적인 행동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교회의 위대한 교부들이 모두 언변의 능력과 거룩한 삶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두 가지의 능력을 다 갖춘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변의 능력보다는 거룩한 삶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달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룩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에 큰 불행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동과 삶이 말과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나아가 교회를 불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기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는 정교회의 가르침 중 한 가지는 하느님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라는 것입니다.

정교회 예배에서 신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자비에 호소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도 이 진실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교회의 기도 중 가장 위대한 기도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구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는 ‘예수기도’라 할 수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지상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과 해방의 사역을 펼치심으로써, 하느님의 이 ‘위대한 자비’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우리의 구원의 희망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구원의 예수님께 큰 자비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성가 작가들은 정교회의 많은 성가들을 ‘주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느님



께 간청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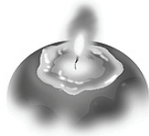
이렇듯,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에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육신을 취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와 성 삼위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회의 예식 중에 예식을 집전하는 성직자들은 다음의 기도문들을 반복합니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느님이시니, ...”, “주는 선하시고 자애로운 하느님이시나니, ...”, “위대하신 하느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리이다.”, “... 당신의 외아들의 은혜와 자비와 자애를 믿고 ...” 등.

그러므로 예배에서 이런 기도들을 형식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느님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마음 속으로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이 기도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질문과 대답1

질문 : 누구라도 사제더러 고백성사 때 들은 죄에 대해 말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

대답 : 비록 수많은 소설과 히치콕(A. Hitchcock)의 영화 ‘나는 고백한다.’와 같은 많은 영화들이 특별히 이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제도 회개하는 신도의 고백 내용을 드러내도록 강요당할 수 없다. 회개와 고백성사 안에는 신도와 하느님, 그리고 영적 아버지 사이에 ‘봉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

모든 고백은 직접적으로 하느님께 전달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홀로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신성하고 엄숙한 과정 속에서 사제의 역할은 회개하는 이의 곁에 서서 증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때로는 도덕적인 조언이나 필요한 영적 안내를 해주어 신자로 하여금 하느님의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 자유롭게 진실되게 고백을 하고, 이어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수정하겠노라고 약속을 한 뒤, 사제는 영대(領帶)를 그(녀)의 머리 위에 두고서 죄를 사하는 기도를 드린다. 이로써 하느님의 신비로운 임재와 무한한 자비에 힘입어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과 수치는 사라지는 것이다.

▶ 아타나시아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의 축일 인사말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성인의 증보로 항상 건강하셔서 선한 목자로서 주님의 양떼를 잘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소 식

성 니콜라스 성당

■ **예비 신자 교리반 2학기 개강** ▷ 9월 9일(주일) 예비 신자 교리반 2학기가 개강됩니다. 9월 둘째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총 12주에 걸쳐 진행될 2학기 강의는 정교회의 예배와 성사 그리고 영성 생활 등 전례와 실천에 집중하여 공부합니다. 교리반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무실 혹은 교리 교사 박노양 그레고리오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성모 안식 성당

■ **성모 안식 축일** ▷ 전주 성모 안식 성당에서는 성당 축일을 맞이하여 14일(화) 오후 6시에 축일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예식을 드렸고, 15일(수) 오전 9시부터 축일 조과와 성찬예배 그리고 광복절 영광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성당 축일을 위해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와 요한 박인곤 보제를 비롯하여 서울 성당에서 여러 교우들과 영어 캠프를 위해 그리스에서 온 교사 2명이 함께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축하 공연을 통해 성모 안식 축일을 기쁨 가운데 보냈습니다. 먼 길을 오신 분들과 축일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성모님의 축복과 중보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주일 학교 물놀이** ▷ 지난 18일(토)에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20여 명이 충남 예산에 있는 리솜 스파 캐슬로 물놀이를 다녀왔습니다. 그 동안 무더위 속에 수련회와 성당 축일을 위해서 수고했던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휴식과 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물놀이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부인회 터키 성지순례** ▷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 까지 10일 동안 인천 성 바울로 성당 부인회 10명이 터키로 순례여행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정은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 총대

주교청 및 조오도호스 빠기 수녀원을 비롯해서 소티리오스 피시디아 대주교님께서 관할하시는 피시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순례가 이뤄졌습니다. 피시디아에서의 여행은 저희들에게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먼저 성 사도 바울로께서 선교하신 피시디아의 안디오키아 유적지에서 이루어진 야외 성찬예배에 참석하였으며,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안탈리아 지역의 성 알리피오스와 성 바울로 성당에서 총대주교님과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을 모시고 함께 성찬예배를 올리는 축복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성 알리피오스와 성 바울로 성당은 낡고 오래된 옛 성당 건물을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 매입하셔서 여러 학자들의 고증을 거쳐 복원하셨기에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 직접 세우신 알라냐 지역의 피시디아 성모님 성당에서는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을 위한 구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을 위해 본 고장에 살고 계신 많은 교인분들께서 준비해주신 풍성한 음식과 문화 행사에 저희도 함께 참석하며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중간 중간에 방문했던 이스파르타 지역의 성모님 성당, 에이르디르에 있는 자선치료자 성당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지금은 사정상 닫혀있고 보수가 되지 않아 낡은 상태로 장기간 보존되었기 때문에 옛 성당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방문한 미라 지역의 성 니콜라스 성당(지금은 유적으로 남아있으며 성찬예배를 볼 수 없음)은 우리와 너무나도 친숙한 성인의 성당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방문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성당 내부에 그려져 있는 비잔틴 성화뿐만 아니라 성당의 옛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번 순례 여행을 통해 우리만의 새로운 순례 길을 발견하게 됨에 감사드리며, 여행 일정 내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소티리오스 대주교님,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과 아가티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간 예식

- 8월 29일(수) 세례자 요한의 침수 기념일
 - 8월 30일(목) 성 알렉산드로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축일
 - 9월 1일(토) 교회 연도 시작
- 각 축일 ▷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